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2. 〈사랑〉 빠진 실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울리는 썰과리와 같다.
3. 천 년을 이야기해도 ‘사랑’ 이다. 〈사랑〉 가지고 산다. 고로 하나님도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시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4.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돈’ 이 많아도 ‘환경’ 이 좋아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돈도 벌고, 좋은 환경도 찾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다.
5. 기도할 때 ‘주’ 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실 때 ‘보낸 메시아’ 를 빼놓고 하지 않으신다. 항상 개입시켜서 하신다.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주’ 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6. 하나님도 결정하실 때마다 항상 ‘지구상의 대표’ 와 의논하신다. 〈의논〉이 없으면, 그 일이 깨지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지구상의 대표, 곧 ‘하나님이 보낸 자’ 와 의논하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행하고, 대신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

7. <주>는 ‘사랑에 대한 설교’는 눈을 감고 해도 잘한다. 왜?
<주의 경력>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8. 오직 <시대 주>만 ‘에덴동산의 사랑 인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봉’을 뗐다. <사랑>으로 인봉을 떼니, 정확하게 맞혔다. <정확한 명중>을 시켰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으로 인봉을 못 떼고 ‘과일’로 인봉을 뗐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인봉을 떼면 이단이다. 성경을 외람되게 해석한 것이다.” 한다. 그래도 역시 근본은 ‘사랑’이다. 고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이라이트는 역시 너와 나의 사랑이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9. 언제든지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다.

10. (하나님) <사랑>을 빼면 너와 내가 같이 살겠느냐? <사랑>을 빼면 나와 같이 못 산다. 나 여호와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낸다.

11. 하나님은 “하이라이트는 <나의 사랑>이다.” 하지 않으시고, “하이라이트는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왜? 하나님 혼자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남자 혼자 사랑을 못 이루는 것과 같다.

12.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데는 ‘지옥’ 밖에 없다. <갈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다.

13. 사랑함으로 ‘천국’ 가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게 만든다. <자기>가 그리 만드는 것이다.
14.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15. <사랑>은 참으로 크고 예리하다.
16. <월명동의 돌들>이 무겁다고 하지만, ‘사랑’ 만큼 안 무겁다. <사랑>은 참으로 묵직하다.
17.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18. <사랑>은 원자폭탄과 같다. 그래서 선생이 산에서 기도할 때 ‘사랑의 원자폭탄, 말씀의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19.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기에,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사는 것이다. <씨>가 땅에서 죽고, 거기서 ‘새 싹’이 나는 것이다. <새 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20.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신 설교도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 하셨다. 곧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에 간다.” 함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육적 사랑>은 ‘육신의 세계’로 빠지게 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한 것은 죄로 판정된다.

21. <하나님의 주권권에서 한 것>만 죄가 아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없고, 미움도 없다.

22. <혼자 사랑>은 해 봤자 ‘자기 사랑’에서 끝난다.

23. (하나님) 너와 나의 사랑이다.

24. 마음 놓고 하나님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그대로 또 온다.

25. <사랑>은 돌고 돈다. <사랑>은 가면, 다시 오게 돼 있다.

26.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27.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신적 사랑’을 그대로 주신다.

28.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다.
29. 하나님은 항상 ‘상대적 사랑’을 하신다.
30.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는 ‘뜻’을 못 이루신다.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이 이뤄진다.
31.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사랑해 오셨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지옥의 문제, 불만의 문제, 무신론의 문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학문 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고로 하나님은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보내셨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배우고 세상에 나온다.
3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 본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는 ‘내 사랑, 내 애인’이다. 그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셨다. 그는 ‘사랑의 통로, 사랑의 길, 사랑의 다리’이기 때문이다.
33.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펴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34. 가령 한 남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데, 여자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장나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을 해야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만나 모터가 돌아서 불이 불듯 사랑의 불이 붙는다. -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을 ‘보낸 자’를 통해 대변하게 하셨다.
35. <진실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을 줬는데 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36.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다. 왜? 몰라서 그러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도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살리지 못한 고로 ‘사랑이 없는 세계, 흑암의 세계, 사망’으로 간다.
37. <진실한 사랑>을 살리려면,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육적 사랑, 영적 사랑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38.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자기 몸을 바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39.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

님, 우리의 것' 이 된다. 곧 '내 하나님, 내 것' 이 된다.

40. 사랑했는데 변하면, '사망' 으로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변했을 때 '사망' 으로 가는 것은 천륜의 법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한번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 보아라. 태양 없이 살면, 하루도 살 수 없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와도 안 죽고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야 된다.

41. 사람 사이의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다 받는다.

42. 가령 자기가 살면서 태양을 쓴 것, 지구 세상을 쓴 것, 천지 만물을 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놓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43.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내 세상이다.” 하며 산다. 하나님은 '때' 가 되면 그런 자를 여지없이 심판해 버리신다. 그러면 그 영이 영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무지한 짓을 하고 살았다.' 하고 여실히 깨닫는다. 세상에서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만도 못하다.

44.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그리도 크다. 오죽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대가를 받겠느냐.
45. 하나님이 사랑해 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도 크다.
46. 일생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도 크다.
47. <신앙>을 자유의지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지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리라.” 했다.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자기는 ‘자유의지’ 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 ‘사망’ 으로 간다.
48. <하나님 주권권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섬기면, 모두 ‘우상을 섬기는 자’ 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자’ 다.
49.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라.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사랑하여라. 그러면 ‘황금성 천국’ 에 가리라.

◎ 기도하겠습니다.